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 하나님의 필연

(에 1:13-2:4)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평안이고, 미래이며, 소망입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위험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아하수에도 왕은 자기의 명령을 어긴 왕후 와스디를 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지방장관 중 므무간의 조언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므무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당시 수산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 다른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일까?”라고 불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혜로 유다를 향해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수를 두고 계셨습니다. 아하수에도 왕이 있는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계획에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들이 생겨 기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이르는 일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안과 축복,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God's Necessity

(Esth. 1:13-2:4)

In truth, nothing happens by chance to those who believe in God. There is only God's necessity for u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e 8:28).

If we turn to all the uncontrollable and fragmented areas in our life, we k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not understand. However, God's thinking and plan for us are ultimately peace, future and hope. Though there are sometimes danger and suffering and times when it seems like all is lost, in the long run,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the good.

This is the very message that the text gives us.

King Xerxes decided to dethrone queen Vashti who had disobeyed his command. His decision was greatly executed by one of the Provincial officials, Memucan's. However, this was God's plan in order to save Jewish people, and Memucan was used as a tool to accomplish God's will, while he did not know it himself.

Subsequently, Mordecai and Esther appeared. Both never knew what had happened in the citadel of Susa. They would rather complain, “All the other Jewish people returned to Jerusalem. Why are only we still here?” But the plan of God's necessity in which Esther would be chosen as a queen was waited.

God had a chance of salvation and revival for the Jews with His eternal wisdom. A chain of events happened in the citadel of Susa where King Xerxes was staying. These did not arise by chance, but was necessary result of the plan of God for the Jews.

Is there anyone who is suffering and cannot understand why among us? Is there anyone who feels overburdened with the events that have quickly come to them? Or, is there anyone who is happy owing to their good fortune? You must never forget the fact that God ultimately works for our peace and blessing, recovery and revival, from all sorts of human emotion,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even to the unknown things of which we cannot even imagine.

We cannot completely understand all of God's plan and guidance. Just like the Prophet Isaiah's saying, God's thinking is different from ours, and God's way is different from ours. Just as heaven is higher than earth, so is the God's way higher than ours. We cannot even begin to imagine what is known and done by God.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God's people who are saved by God's son Jesus Christ, His blood on the cross. We are God's children whom God nominated, called, and possessed.

Are you in suffering? Did you really come across the things that you could not understand? But in such things, there is God's peace, bright future, and hope.

Please look at the cross. In order to save, bless, recover, and revive us, God gave us His life, Jesus Christ. God has given everything for us to be together with Him.

By holding the cross strongly, and going on with courageous faith, I earnestly hope you will win in the world.

지난 한 해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감사



한상은 목사

2012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교구목사로 섬겼던 1,16교구의 성도님들, 교육부서로 섬겼던 사랑부와 신혼가정부의 학생들 성도님들, 그리고 비전2020운동, 전도위원회, 주부대학 등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소중하게 간직하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은 제게 있어서 생각하고 바랐던 것과는 일들



서명철 목사

또 한 해를 부족한 종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신 9, 10, 12교구의 모든 리더들과 다락방 식구들, 소망부의 선생님들과 성



정수길 목사

“귀관들을 모두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 하나는 맹세한다. 나는 제군들보다 한 발짝 먼저 적진에 달려갈 것이며, 한 발짝 늦게 적진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함께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미군 역사상 최대의 화제가 되었으며 ‘전쟁을 변화시킨 전투’라고도 불리는 베트남전쟁의 ‘이아드랑 전투’(1965년 11월 14~16일)에 투입되기 직전, 지휘관 해롤드 G. 할 무어 중령이 부하들에게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나중에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할 무어 장군은 베트남전쟁



정석남 목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13교구를 최선을 다해 섬기신 교구장 조정식 장로님, 부교구장 주동재 집사님, 간사 윤명구 집사님, 김미성 집사님, 그리고 임원진-박옥 권사, 백정숙 권사, 이영미 집사님을 비롯한 교구 일꾼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행복하게 교구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의 앞뒤에서 섬기며 수고하시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성례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덕에, 서울교회의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신성하고 격조있



황광 목사

2012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와 한 배를 타고 달려온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 준 사역들을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임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섬겨주셨던 11,14,15교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교육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를 다하셨던 부서 교역자님들과 교육위원회 모든 장로님과 섬김위원들,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다르게 전개된 경우가 여럿 있었던 해인 듯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있었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통로가 되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과 그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2013년도 저는 5~8교구를 섬기며, 기타 부서는 같은 부서들을 계속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바르게 쓰임 받는 교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가정에서 하시는 일에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님들, 살롱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디아스포라부의 선생님들과 형제자매들, 목회자신학세미나의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순례자 편집위원들이 보여주시는 모든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더욱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명장입니다. 무어 장군이 보여준 지휘관으로서 가장 탁월한 면모는 동료장병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솔선수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더불어 영적 전투의 현장에 함께 서있는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드린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어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김의 현장을 위해 한 발짝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며, 한 발짝 늦게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겠습니다. cum vobis in domino(쿰보비스 인 도미노,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는 교회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어, 국내의 62분의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 신용식 장로님, 송인권 집사님을 비롯한 선교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선교현지를 위해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 주신 20개의 선교사 기도팀장님들과 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실 관리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충직하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윤요섭 집사님, 오주명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70인 전도대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2년에 베풀어 주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2013년에도 내려 주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마가 다락부 선생님들, 아주 작은 섬김에도 기뻐하고 감격해 하시며, 성경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시던 마가 다락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2013년 새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유문건 목사



201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3년도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께는 존경과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회의 주력교구들로서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과 사랑의 1교구, 16교구의 성도님들, 서울교회의 문

을 두드리는 새가족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시는 새가족부의 귀하신 모든 선생님들,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시는 기둥과 같은 일꾼 스테반회의 모든 안수집사님들, 서울교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담당하시는 찬양위원회와 모든 찬양대원들께 새해에는 더욱 크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규현 목사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 볼 때 저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올 한해 동안 에바다부를 위해 수고하신 부장님, 부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농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통역으로 봉사하신 수화통역 봉사자들의 수고도 감사드리며 서로 협력해서 열심을 다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하며 협력해 주신 에바다부 모든 농민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에바다부에는 감사드릴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농민청년모임이 부흥되었고 성장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농민중심과 농민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에바다부가 부흥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 목사



특별히 올 한 해는 VIP 초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함께 그 행사를 치러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의 첫 발걸음으로 각 교육부서의 예배가 독립되어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또한 깊은 감사의 샘물이 제 마음 가운

데 넘쳐납니다. 이 감사의 샘물이 그저 제 마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신 은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2013년도 제게 맡겨 주신 사역의 장 안에서 마음껏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젊은이들과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함께 사랑으로 한 해를 달려와 준 금요기도회 찬양팀원들, 그리고 청년2부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올 해 이 감사가 2013년도에는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돌아오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김인성 목사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48)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이후 계속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는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 장로님들, 한결같이 헌신적인 유년부 선생님들, 감동을 주시는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선생님들, 참 귀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유년부와 꿈나무 스쿨 어린이들,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기도와 섬김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 2012년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참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배경애 전도사



늘 말씀, 기도, 전도, 즉,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의 주의 종이 되고자 다짐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늘 풍성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0인 전도대 부장님, 두 분의 차장님, 각 팀의 팀장님, 축조총괄팀장님, 서기님, 회계님 충성스러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70인 전도대 모든

분들께 사랑하며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1,2권사회, 샬롬 권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모든 권사님께도 섬김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반 교사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미가서 7장 8절 말씀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존행하며 하나님께 칭찬 받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종진 목사



지난 2012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감사한 일 밖에 없습니다. 고등부의 부장님, 차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뜻과 눈물과 헌신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기쁨은 서울교회 고등부 목

사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고등부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만의 예배를 통해 고등부가 더욱 성숙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열정과 비전과 헌신으로 고등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실 부장님, 부감님들, 함께 하실 모든 교사들을 위해 온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정호 목사



소위 ‘고등부 학생들도 무서워 한다는’ 중등부 아이들은 그 당시 저의 머릿속에서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대치동 지역 중학생들은 고등부 선배들이나 어른들의 충고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터라 급기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오 주여 어찌 하오리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한낱 의미 없는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공대와 같은 중등부

선생님들의 신앙과 헌신, 그리고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심리를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 노하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겨울 수련회에서 완벽히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더니 여름 수련회에는 그 폭염에 아예 아이들과 함께 역과 터미널로 공원과 병원과 요양원 등으로 다니며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땀을 흘려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 사랑에 젖어 있었습니다. 중등부 부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모든 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다영 전도사



올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너무 감사드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분이 넘치는 선생님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유치부 송인수 부장님, 박우욱, 정치는 부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선생님께도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어린이 수요예배를 섬기시는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수요일에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을 더욱 더 섬기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 2012년 서울교회 10대뉴스

## 1. 향존직 선거 장로 5명, 집사 44명, 권사 60명 선출

올해는 9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향존직을 일괄 선출한 해였다. 또한, 2003년 이후로 임직된 장로가 1~2명의 소수에 불과했는데 9년 만에 5명의 장로가 한꺼번에 선출돼 당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 2. 새로운 '사명자대회' 결실 풍성

'7주간의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시작된 올해 사명자대회는 5,400명에 이르는 전도대상자, 즉 'VIP'를 놓고 24시간 연속 기도를 하여, 619명이 새 생명축제에 참석, 286명이 결신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



## 3. 교회학교 자체 예배 개설 결의

교회는 2000년 대치동 시대 이후 1부 가족예배와 3부 청년예배를 드리면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다가, 내년부터 자체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 4. '한국장로교 총회 100주년' 기념 주도

올해로 한국 장로교 총회가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목사장로기도회(1월31일)와, 사진전(4월4일~10일), 기념대회(9월1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특히, 1934년 총회의 결의 이래 지금까지 중단돼 왔던 '표준주석' 편찬도 올해 첫 출간을 하는 결실을 맞보았다. 이종윤 원로목사는 표준주석 편찬위원장을 맡았고, 기념대회 등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교회도 주도적으로 기념행사 진행을 섬겼다.



## 5. 다음 세대 위한 '꿈나무 영어성품 스쿨' 개교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을 개교했다. 16주간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7세부터 초등생까지 어린이들이 영어와 놀이학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주 5일제 수업 등 현재의 교육환경을 기독교 교육에 반영한 우리 교회 최초의 '어린이 대상 주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6. '생명의 물' 우물파기 사업 확대

교회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우물파기 선교 사업의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4곳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4개국 23곳으로 늘리고, 마실 물이 없어 신음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 7. 오정수 장로, 전국장로회연합회장 취임

우리 교회 오정수 장로가 11월 15일 전국장로회연합회장 및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에 취임했다. 서울교회 1대 장로이자, 창립의 주역이었던 오 장로는 연합회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희망을 심고, 타교단 연합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8. '신생아 첫 예배 시 축복기도'

태어나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예배시 축복을 하기 전 부모와 신생아가 단상으로 올라가 담임목사에게 축복기도를 받는 시간이 생겨났다.



## 9. 제9회 한미음 한가족 잔치 '교구별로'

2년마다 열렸던 한미음 한가족 잔치가 올해는 3년 만에 열렸다. 특히 이번 한미음 한가족 잔치는 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위해 교구별로 열려 교구 식구끼리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 10. 모바일 웹서비스 개통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 등으로 모바일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교회는 서울교회 전용 앱과 '익투스'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 구축, 이를 통한 QT서비스 및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갔다.



정리: 김민철 집사(편집부)

## 2012년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명단

1교구 김선자, 류순임, 손용문, 박인자, 이인숙 5명 / 2교구 배은희, 안창휘, 윤현만, 이응선, 정봉규, 최영열 6명 / 3교구 김수원, 배재송, 이경구, 이순례, 임분도 5명 / 4교구 김복녀, 윤동수, 이승민, 이승희, 이자혁, 홍광숙, 손병석, 이영희 8명 / 5교구 이광열, 이윤영, 임범창, 임선철, 최소희, 최학인 6명 / 6교구 강영순, 김대웅, 김희진, 서영택, 임순자, 유을상, 이영희, 이원희, 이춘실, 황보주자 10명 / 7교구 김영례, 손명근, 정연택, 정정희, 김정애, 이영숙 6명 / 8교구 임윤자 1명 / 9교구 김미자, 김명화, 김진숙, 송옥혜, 한옥순, 임낙식 6명 / 10교구 여현진, 이동

찬, 최무순 3명 / 11교구 김태욱, 이경희, 이옥희, 이은희, 이흥기, 전배호, 조정옥, 국산옥, 안인호, 김재중 10명 / 12교구 강희자, 김인순, 남정열, 나경미, 송성식, 양동덕, 이안순, 이정연, 전원순, 정희순, 이민희 11명 / 13교구 김미성, 김동진, 김희순, 남상경, 박성희, 손성실, 오정숙, 이금순, 장영순, 장성자, 주화인, 최금봉, 장정옥, 최준숙, 홍현숙, 홍건표, 백정숙, 17명 / 14교구 박선자, 원명희, 이명순, 정미연, 최나준, 최태욱, 이미연, 최금자, 권명희 9명 / 15교구 김경희 1명 / 16교구 송경옥, 이규희, 장양일, 정복순, 장정숙, 최규초, 이상호 7명 이상 111명

##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교사 모집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에서는 교사로 함께 하실 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대상: 세례교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성실한 분  
· 수업 시간: 3-6월 / 9-12월 학기 중 토요일 오전 9:30-12:30  
· 하는 일: 반 어린이들의 수업 참여를 돕습니다

격려해 주기  
· 혜택: 좋은나무성품학교 교회학교 교사세미나 월 1회 무료 수강  
· 교사지원서 비치 및 제출: 1층 사무국 (문의: 지도목사 김안성 010-8829-7818)

## 다락방 모임 겨울방학

다락방 모임이 2013년 1월 한 달 간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은 1월 30일 수요일부예배 후에 하며, 1일 수련회 일정은 차후에 공지한다.

#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김광신 장로

김광신 장로는 1942년생으로 교회 설립 직후 제1대 장로로 취임했다. 당회 서기, 교육위원장, 찬양위원장, 할렐루야 찬양대장, 12·1교구장, <순례자> 편집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부인 이인선 권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30년전 인수받을 때의 감동이 몇 년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과 함께 겸손히 섬기겠다는 마음은 꼬리를 감추고 서서히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명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할만큼 칭찬일색이었고 신바람도 났습니다. 어느새 내 모습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익한 종으로 일만 하겠다고 마음은 사라지고 나는 유익하구나, 나는 쓸모있구나, 자만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정착되었고 교인들의 시선에 교만까지 싹틔었습니다. 급기야 나는 얼굴을 뽐내는 존재가 되었고 목이 뽐뽐한 장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유능한 장로가 누가 있을까 물어보게 되었고 선두주자 의식으로 딱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직을 끝내게 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30년의 긴 세월동안 자랑하고 뽐내고 존경받는 것에 익숙했을 뿐입니다. 약한 자의 이웃이 되고 발을 씻어주고 울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한 번도 되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 눈독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의 심정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참회의 기도와 용서받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이 뽐뽐한 사람으로 활보했던 모습을 뒤로 하고 '정말 무익한 종이었습니다'를 고백하며 그림자까지도 감추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찾지 마십시오. 나를 잊어 주십시오. 나는 안 보입니다. 나는 숨어 있는 자입니다. 서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골방의 무익한 종이 되겠습니다.



성준경 장로

성준경 장로는 1942년생으로 제2대 스테반회장을 역임하고 '96년 제4대 장로로 장립됐다. 예배위원장을 맡아 오랫동안 섬겨왔고,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장, 5교구장, 아가페타운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부인 장낙희 권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 1. 은퇴에 즈음한 소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렇게 무익한 사람을 끝까지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께서도 모두들 사랑해주셔서 무사히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은퇴 소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로 입당하던 그 때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지나온 날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사역들이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로 기억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2. 향존직으로 섬기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직분을 맡으면서 그 직분으로 인해 기억에 남는 일이라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원로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로 바닥에 무릎 꿇고 서로 통회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릴 때의 그 모습, 그 때의 생각이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대치동에 교회를 새로 짓고

### 3.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창립하신 이종운 원로목사님이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늘 강조하셨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따르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기독교 본래의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님들 모두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훈규 장로

임훈규 장로는 1942년생으로 '98년 제4대 스테반회장을 역임했고, '99년 제6대 장로로 장립됐다.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 교구위원장, 4교구장, 서울교회 10년사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정경자 권사와의 사이에 1남을 두었다.

### 1. 은퇴에 즈음한 소감

막상 시무장로직을 떠나려니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을 참으로 너무 많이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전에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또 저것도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2000년에 현재의 대치동 예배당 지을 때입니다. 당시 건축 자금이 넉넉지 않던 시기여서 건축 현장에 경비원을 두지 못하자, 교구 식구들이 건축 현장을 지키며 드림통을 잘라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다락방 성경공부를 하고, 밤새 건축현장을 지키다가 새벽 4시에 반포동 예배당으로 향하곤 했던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다락방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구 식구들과의 교제도 깊던 시기였습니다.

### 2. 향존직으로 섬기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서울교회 창립할 당시에 지휘자로 있었는데, 당시 이종운 목사님이 주차 안내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7년간 주차안내를 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시 교통순경한테 교통정리법을 배워가면서 때로는 인근 주민들에게 먹살까지 잡히기도 했지만, 주일 아침 첫 성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보람과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 3. 성도들에게

세상에선 매사에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만, 교회에선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명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사명감과 믿음의 열정을 갖고 교회 일을 감당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복규 장로

이복규 장로는 1947년생으로 2001년 제7대 스테반회장을 역임하고, 그 해 제7대 장로로 장립됐다. 당회 서기, 2교구장, 임마누엘 찬양대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한명순 권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이 장로는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고자 할 경우 소속 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는 총회 헌법 4장 22조 2항에 의거 11월 18일 당회 결의를 거쳐 은퇴하게 됐다. 이 장로는 <순례자> 인터뷰는 사양하는 대신, 젊은 세대들이 더욱 교회 일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는 말로 은퇴소감을 대신했다.



# 항존직 은퇴식 / 특별제직회 / 송구영신예배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월) 오후 11시 - 본당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은 서울교회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로 모시게 된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의 명단은 장로 4명 - 김광신, 성준경, 임훈규, 이복규 장로, 집사 5명 - 김병용, 송

성식, 양득춘, 이찬호, 장인원, 집사, 권사 12명 - 박경희, 손재겸, 오영자, 이수경, 이영희, 이용자, 이정자, 임윤자, 전완순, 최양자, 홍재식, 황보주자, 권사 등이다.

또한 찬양예배 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리며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로 모인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월)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받기 바란다.

### <당회원 사진촬영 공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후 당회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뒤 한 분도 빠짐없이 강대상 앞으로 모여 사진촬영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70인전도대 팀별 전도상

70인전도대 전도상 공동우수 2개팀 <자비팀/사랑팀>

\*대표팀장: 자비팀장 윤숙지/사랑팀장 장미자/집사

1>자비팀: 윤숙지, 김태욱, 서현정, 서영옥, 박이선, 김화옥, 김영은, 선혜영, 김정제, 김동진, 김미성, 최성희, 박미경, 윤정선, 김미숙, 정희영, 이미란, 배명숙/18명

2>사랑팀: 임명숙, 고정례, 구희은, 박정임, 장미자, 장영순, 정수진, 최유진, 한혜주, 김보경, 이윤자, 박옥, 장기숙, 김수인, 최종희, 우미란, 최미희, 김은연, 최현순, 정을순, 김중애, 김숙연, 최봉희, 김숙자/24명

## 새해에 변화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교육

### 1월 6일(주일)부터 교회학교별로 예배 드린다

2013년 부터 우리교회에서 달라지는 것 중 가장 큰 사항은 각 교회학교별 예배의 부활이다. 2000년 대치동시대를 열면서 9시 1부 예배를 가족예배, 3부 예배를 대·청부 중심의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부모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예배참석의 어려움으로 내년부터는 교육 부서 자체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1월 6일 첫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기에 중, 고등부 이상의 부서들은 1부 연합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교육부서	요일/시간	장소
유년부	주일 오전9시	701호
초등부	주일 오전9시	601호
중등부	주일 오전9시	501호
고등부	주일 오전9시	101호
청년1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 신임 교역자 부임

초등부를 담당할 준전임 전도사로 최민혁 전도사가, 유아부를 담당할 교육전도사로 구분혜 전도사가 오늘(12월 30일) 부임하였다. 최민혁 전도사는 1981년생으로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 재학 중이다. 구분혜 전도사는 1968년생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 2013년 성경통독 사경회

### 1. 3(목)~4(금) 09:30-17:00/ 101호

2013년을 맞아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를 1월3일(목)~4일(금)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성경통독 범위는 시편

~ 예레미야애가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및 청지기 수련회

### 주제 :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골. 1:6)

### 기간 : 1월 7일(월) ~ 12일(토) 새벽 5시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일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기도회 후에 위원회 별로 101호실에서 청지기 훈련을 갖는다.

구분	1/7(월)	1/8(화)	1/9(수)	1/10(목)	1/11(금)	1/12(토)
05:00-05:50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청지기수련회)* (설교: 박노철 목사)					
05:50-06:20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광 목사)	예배위원 및 전양대원의 역할과 자세 (정석남 목사/유연근 목사)	전도위원의 역할과 전도전략 (완성은 목사/배경애 전도사)	2013 선교일꾼의 자세 (장석남 목사)	성감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대상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전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기타 성경위원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013년 1월2일(수) 진위중.고등학교 교직원 시무예배 설교를 한다. 1월5일(토) 사랑의 쌀운동, 울란바타르대학이 사회에서 각각 설교를 하고 한국기독교학술원 시무예배 설교를 한다.

■ 공연: 3교구 이승현 성도(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발레리노) 호두까기 인형, 12월 21-31, 유니버설아트센터

■ 주간식당봉사: 스테반회(12.30) 제1권사회(1.6)

■ 금주의 식사: 최원자 권사·김세호 집사 정신아 집사·김민정 집사, 김범수 성도 가정 (고 김상철 장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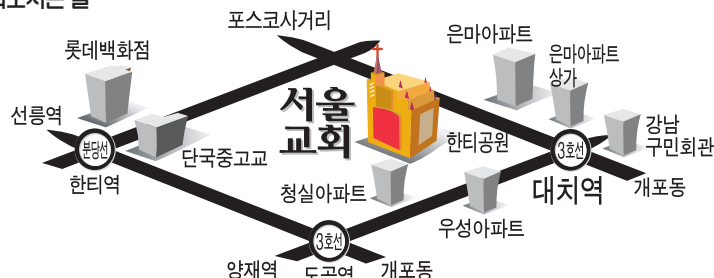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2년 한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 은퇴를 하시는 항존직분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심어 놓은 섬김과 기도의 씨앗이 서울교회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도록
- 2013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세대 예배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부으심의 큰 부흥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